

-김형태-



이 사진은 1979년 봄날에,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던 제가 다니던 동네 작은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을때 찍은 것입니다. 가운데 앉은 뺑뺑머리소녀가 접니다.

언뜻 보기에 별 특별할 것 없는 기념사진입니다만, 제게는 볼 때마다 가슴에 감동으로 남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에 여중생 다섯명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야외로 야유회를 나가는데 굳이 교복을 입을 필요는 없을뿐더러 간편한 케주얼 복장을 하거나 나름대로 한껏 멋을 내서 기분을 더 신나게 할 법도 한데 말입니다.

여중생들 다섯이 교복을 입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섯명 중에 언니뻘이었던 한 학생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외출복이라고는 정말이지 교복 한벌밖에 없었습니다.

야유회를 가기 전에 그 언니가 입고갈 옷이 없어서 갈등하는걸 보고 그 난처한 사실을 알게된 나머지 네 친구들이 묘안을 생각하다가, "그럼 우리도 다같이 교복을 입고 가자!" 고 제안한 것이랍니다.

마땅한 옷이 없어 교복밖에 입을 것이 없었던 그 언니가 민망하거나 어색하거나 불편해 지지 않게, 원래 교복을 입고 가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보이도록, 여럿이 함께 교복을 입고 다함께 즐겁게 야유회를 갔습니다.

이런 속사정은, 20여년이 지난후에나 알게되었습니다.

저 다섯 여학생의 교복은 그 어떤 브랜드의 옷보다 비교할수 없이 예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옷을 브랜드가 아닌 사랑과 우정으로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준 아름다운 학생들, 역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입니다



◀그땐 그랬지▶ 병 우유

한때 우유가 지금의 종이팩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투명 유리에 담겨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우유를 입 대고 마시면 윗 입술 위에 병 모양따라 하얗게 우유가 묻었습니다. 그때 혀를 내밀어 한번 스윽 닦으면 우유의 마지막 여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배달되는 우유를 위해 우유회사 마크가 찍힌 우유 주머니들이 동네 집집의 대문에 걸려있었죠. 우유 배달아저씨들이 빈 병은 가져 가고 새 우유를 주머니에 넣는 그때의 모습은 우유만큼 신선한 아침광경이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9월 19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거룩한 척 하기는 쉬워도

작자미상



사랑해~
거룩한 척 하기는 쉬워도
거룩하게 살기는 어렵고
순수한 척 하기는 쉬워도
어린아이처럼 살기는 어렵더이다

믿음이 있는 척 하기는 쉬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니고 살기는
참말 어렵더이다

남을 돕는다고 얘기하기는 쉬워도
오른손 한일 왼손 모르게 말없이 돕기는
정말 어렵더이다

물질의 허영에서 벗어나는 척 하긴 쉬워도
내 것 나누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더이다

자연을 아끼는 척 하기는 쉬워도
풀 한포기 새 한 마리와
대화하며 노래 들려주기는
더욱 어렵더이다

걸음로 사랑하는 척 하기는 쉬워도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렵더이다

◀답살 듣는 말 한번쯤 하기▶

남편: 여보! 길 좀 알려 주겠어요?
아내: 무슨 길이요?
남편: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8 (시 19)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성찬식	
분병 분잔		분병위원 분잔위원
찬송 Hymn	197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영길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3:47-5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은 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천국은?(5) "천국이 있기때 자복도 있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543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9월의 예배위원◆

◆9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5	현석호	최현철	4구역	5	구역예배(10)
12	김순자	한상미	5구역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19	김영길	한상숙	6구역	15	성찬주일 은 십자가성가대(4남)
26	김종건	한상순	청년부	26	식사친교(추석)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1. 교우소식

<이사> 오용석, 서정숙 집사. 헤린. ☎443-6748 ☐ 84 Sunset Rd. Glenfield
<방문> *김창식, 민광자 집사(미국) *유병민 집사(한국) *정혜숙 집사(한국)
<개업> 최고운(최득수, 오지영 집사 딸) 여성 Fashion 『J.Capstone』
☎ 377-3379 ☐ 37 Chancery St. City

2. 오늘은 제4남선교회의 "은 십자가 성가대" 로 찬양드립니다

3 "수요초청찬양예배" (예고) <일시> 29일(수)

*다음주 수요일예배는 "살롬여성중창단" 과 "익투스 남성중창단" 의 아름답고 우아한 찬양으로 수요일예배를 드립니다

4. 다음주간은 고국에서 추석으로 보내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예배와 함께 식사나누며 이국에서의 추석을 보내겠습니다.

5. "이번 자녀들의 방학에 무엇 하십니까?" <성령과 찬송 특별집회> (예고)

<일시> 27(월)-28(화) 저녁7:30-9:00. 교회당

*이젠 리듬을 따라가기에도 힘든 복음송가에 구식이라고 밀려난듯한 찬송가입니다. 어떤 집회든지 참석할 때면 찬양하는 복음송가를 박자 쫓아가기에 신경쓰다 보니 은혜가 와 달기에는 너무 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예전 부흥회가 생각나며 그때 뜨겁게 부르던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의 방학을 맞아 조금 여유가 있는 저녁입니다. 이런 기회에 마음을 모아 깊고 뜨거운 믿음의 용기를 주던 찬송가로, 준비한 "성령" 에 대한 말씀으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로 소박함과 열정이 있는 성령부흥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이 되는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바랍니다. '준비된 강사' 가 아닙니다. 이번 한주간내내 말씀을 '준비해야하는 강사' 입니다 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초청합시다> *교회를 출석하다가 긴 방학중인 이웃

*저녁식사 후 심심해 하는 이웃

*Kiwicoh회에 출석하여 우리말로 말씀을 듣고 싶은 성도

*우리교회로 인도할 목적으로 하는 이웃교회 성도의 초청은 안됩니다

6. 부흥회를 위한 1) "장로, 권사, 안수집사기도회" 21일(화) 저녁 7:30. 교회

2) "믿음의어머니기도회" 23일(목) 오전11시. 교회

◀착한 시인들▶ 보름달

복호근

땀물 지문이 드문드문 찍혔다
얼마나를 먹고 싶었을까
참고 참다가
누이가 건네주던
차게 식은 삼립호빵

추석의 애뜻한 느낌은 나이가 들어도
오롯이 더해 옵니다. 어릴 적 구차하면
했었을수록 거기서 받은 작은 사랑
들은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가슴 가득
채우는 풍요로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것은 그때 그 여건에서 가장 큰 마음
을 주고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이 점점 커가면서 추석의 만월이 그
려지는 여기에서 풍요로웠던 추석의
기억을 더듬습니다